

## 한국 문화 교육 방법

- 건국 신화 작품을 중심으로

김정미 니자미사범대 한국어과 석사과정 학생

## МЕТОДЫ ОБУЧЕНИЯ КУЛЬТУРЕ КОРЕИ



<https://doi.org/10.5281/zenodo.10199240>

*Ким Жон Ми* - Магистрант 1 курса, Ташкент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 Низами

### 서론

이 논문은 한국의 건국신화인 고조선의 단군왕검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 문화의 일부를 교육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한 나라에 속하는 건국신화가 갖는 역사적 의미와 그 예로써 단군 왕검의 내용을 분석하는 한국어 학습 과정을 통해 한국문화의 일부를 알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본론

신화는 시대적으로 고전문학이다. 기원전 2333 년에 세워진 나라 고조선의 건국신화는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문학에 속한다. 이후 고려시대의 일연이 작성한 역사서 <<삼국유사>>에 기록되면서 기존의 구전방식을 탈피하고 변함없는 내용으로 전해지게 된다. 신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늘 왕 환인의 아들 환웅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늘의 왕권을 상징하는 보물인 바람, 구름, 비를 관장하는 신하 및 삼천 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인간 사회를 다스리고 있다.

어느 날 한 동굴에서 함께 살던 곰과 범이 그에게 찾아와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소원을 말한다. 환웅은 둘에게 ‘신령한 쑥 한 대와 마늘 스무 묶음’을 주면서 ‘이것을 먹으면서 100 일 동안 해를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되게 해준다’고

한다. 하지만 범은 얼마 견디지 못하고 달아나고 함께 있던 곰은 21 일을 지내고 있던 중 사람이 되어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결합해 단군을 낳게 된다. 무려 1,500 년간 나라를 다스리는 단군이 바로 고조선의 건국자이다.

‘단군’이라는 말에는 제사장과 왕이란 의미를 포함, 즉 왕이 제사장 역할도 겸하는 시대의 국가임을 추정해볼 수 있겠다. 한국 최초의 왕으로서 단군왕검은 아버지는 하늘에 속한 자이면서 땅에 속한 자이고, 어머니는 곰이라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탈바꿈한 그 둘 사이에서 생겨난 매우 특별한 존재감이 있는 왕이다.

여기서 신화의 가장 특징적인 면인 상징적 표현이 가미된 부분을 풀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단군왕검의 아버지 환웅에 대한 것이다. 하늘의 왕 환인의 아들로 비유되어 있는데 실은 다른 곳에서 이주해 온 하늘을 숭배하는 부족으로서 이미 그 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 곰부족과 결합하여 나라를 세우는 주체가 된다. 이때 나라를 세운 왕의 근본에 대해 엄청난 과장을 했다가 보다 왕의 자리는 하늘이 내었음을 확고히 믿는 한민족의 문화적 신념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1,500 년간 나라를 다스렸다는 말은 단군과 그 후손인 2세 단군, 3세 단군 등이 천오백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한 동굴에서 살던 곰과 범은 각각 한반도와 만주에 살던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범을 숭배하는 부족이 그 당시 함께 살고 있었음을 표현한다.

셋째로, 환웅이 곰과 범에게 준 ‘신령한 쑥 한 대와 마늘 스무 묶음’은 곰과 범이 식량으로 사용할 양식을 제한해 줌으로써 육식동물로서 그들이 이겨낼 어려운 인내심을 시험하는 상징적이고 민족적인 재료이다.

넷째로, 100 일을 지내야 인간이 될 수 있는 필수 조건을 무시하고 21 일만에 인간이 된 곰에 대해서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나타낸다.

## 결론

이렇게 신화속에 표현된 단군왕검의 내용과 상징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살펴본 결과 알 수 있는 한국 문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군 즉 제사장과 왕의 자리는 하늘에 이어져 있다는 즉, 왕권신수설과 같은 인식이 있는 민족의 나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존속되는 바른 통치자의 모습은 환웅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는 ‘홍익인간’사상이 한국의 정치신념라는 것과 인간이란 존재는 곰이 100 일을 채우지 못한 채 사람이 된 것처럼 불완전한 존재임을 아는 민족이라는 점 등이 단군신화 속에서 볼 수 있는 한국 문화의 일부이다.

### 참고문헌

왕희범 ‘단군조선 형성의 신화적 반영연구’ 전남대 2016

나경수 ‘한국 건국신화 연구’ 전남대 1988

‘우리 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조경철 ‘단군신화의 보편적 인간관’ 한국민속학 2018